

## 본문에 앞서

### 1 비극

소포클레스의 *Oedipus Rex*

예언 -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의 남자

그 예언 때문에 버려진 아이, 오이디푸스는 ‘부어오른 발’이라는 뜻

자신의 운명에 관한 신탁을 듣고 왕국을 떠난 오이디푸스, 갈림길에서 우연히 자신의 생부, 라이오스를 만나 결투 끝에 그를 살해한다.

이어 테베로 향하던 중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를 구하고, 왕이 되어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한다.

신의 저주를 받아 테베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범인을 찾는데, 티레시아스가 저주의 원인은 친부를 살해한 오이디푸스라고 지목.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어머니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찌르고 테베를 떠난다. 여기서 눈을 찌르는 것은 역설적으로 통찰력을 얻는 의미다. 새로운 깨달음.

부친살해의 신화는 적지 않은데 하필 오이디푸스였을까? 모르는 주체

### 2 오이디푸스, 프로이트

프로이트의 개인사를 살펴보면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유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자신의 어머니와 이복형의 나이가 같고, 어머니와 20살 차이가 나는 아버지는 사실상 할아버지에 가까운 존재였다. 이복형의 아들인 조카는 프로이트보다 한 살 많았다. 이런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프로이트는 어머니를 매력적인 여자로 보게 될 여지가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미묘한 감정들을 그의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차 여행에서 어머니의 나체를 보았던 기억)

### 3 프로이트적 주제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의 오이디푸스

“무서운” 진리; 그러나 우리는 이 무서운 진리를 폭로하도록 이끌린다. 실재

### 4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두 가지 근본특징

a. 삼각관계: 어머니-아버지-아이

b. 모든 인간의 양성성, 이것이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아이가 두 부모들에게 동일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 5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아이의 네 가지 입장들

1) 주체로서의 아버지와 동일시

2) 주체로서의 어머니와 동일시

3)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4) 대상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일반적으로 남아는 1), 4)로 향하고, 여아는 2), 3)으로 향한다.

남아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발달시킨다. 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고착과 연결되는데, 어머니의 젖가슴은 영양분의 원천일 뿐 아니라 사랑과 보호의 원형이다. 이와 병행하여 남아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이 국면에서 위의 두 관계는 공존한다.

완성형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소위 긍정적 오이디푸스와 부정적 오이디푸스라는 두 형태를 갖는다.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남성 모델이고, 부정적인 것은 여성 모델이다.

우선 이행은 어머니에 대한 소년의 애정의 강화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정서들은 너무도 강력해서 그 소년은 어머니의 사랑 대상인 아버지를 장애물 혹은 경쟁자로 간주한다. 이는 진정한 오이디푸스 갈등의 시작을 나타낸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결국 그를 제거하거나 죽이려는 욕망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 소년은 무엇보다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망한다. 그러나 그 소년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결코 완전히 적대적이지 않다.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이 동일시는 이제 경쟁과 적대성이라는 감정들로 보완된다. 이는 결국 심오한 양가성으로 이끈다. 이것이 **정상적인** 어린 소년의 성 심리 발달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것이 소년의 남성화로 이끌며, **긍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성의 리비도 투여는 소년과 정반대로 나타난다. 소녀는 자신의 리비도를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에 투여한다. 그녀는 동시에 어머니의 입장을 취하고, 아버지에 대해 여성적 태도를 드러낸다. 이는 결과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질투와 적대감을 낳는다.

**소년들도 이러한 패턴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다.** 이 경우 소년은 소녀 취향의 행동을 보인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여성다운 태도를 취하고 어머니에 대해 질투 혹은 적대감을 발달시킨다. 이것이 동성애로 이끌 수 있다. 유사하게 소녀들은 그릇된 패턴을 따를 수 있다. 즉 소년들이 추구했던 긍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따라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는 아이의 미래의 성 정체성을 결정한다.

## 5 용어의 역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는 1910년 「남자가 행하는 대상 선택의 특별한 유형」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에 프로이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용어로부터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빌렸다. 그렇지만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프로이트의 언급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이트는 1897년 절친 플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발견했네. 내 경우도 그렇지만,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고 아버지를 질투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모든 아이가 겪는 **보편적 사건**으로 간주를 하네. . . .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이디푸스 왕』의 매력적인 힘을 이해할 수 있지.” 사실 그 개념은 『히스테리 연구』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거기서 프로이트는 아이가 겪는 성적 유혹의 외상적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었다.

이후 그 개념은 프로이트에게 점차 중요성을 갖게 된다. 『꿈의 해석』에서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를 소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연적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제거가 자신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음을 안다. . . 최초의 성 충동을 우리의 어머니 쪽으로 돌리고 최초의 증오와 살해 소망을

우리의 아버지 쪽으로 겨누는 것이 어찌면 **우리 모두의 운명**일 지도 모른다. 우리의 꿈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준다. 자신의 아버지 라이오스를 살해하고, 어머니 조카스타와 결혼했던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유아기 소망의 실현을 보여줄 따름이다.” 이 주제는 「도라 분석」에서도 중요했다. 그러나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서 사춘기 이전 유아의 성욕을 인정함으로써 그 작업에서 진일보했음에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었음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꼬마 한스』에서 프로이트는 한스의 말 공포증에 대한 설명을 오이디푸스 충동, 즉 매우 능동적인 유아 성욕에 토대한 어머니에 대한 욕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늑대인간』 사례에서 프로이트는 원초적 장면의 주제와 함께 연결시키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당했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초기부터 프로이트의 임상적 사유에서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 콤플렉스가 보편적인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분석의 과정에서 발견한 이 콤플렉스의 보편성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는 『토템과 타부』에서 가설적 답을 하나 내 놓았다. 인류 역사 초기에 부족을 이끌던 독재적 폭군이 있어 그가 부족의 모든 여자들을 독점했고,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자는 거세시킬 것이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봉기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여성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원초적 죄에 대한 죄의식이 그들을 괴롭혔다. 세대를 거쳐 아버지 살해에 관한 죄의식에 여전히 지배를 받았던 소망과 금지 사이의 갈등이 각 개인 안에서 부활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기원이다. 이 신화적 이야기는 **개체[정신]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는 프로이트의 전형적 모델이다. 이후 「계통발생적 환상: 전이 신경증에 대한 개관」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밀고 나갔지만, 너무도 사변적이라 그 자신은 이를 출판하기를 주저했다.

이후 1923년과 1924년 프로이트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는 두 편의 논문들이 있다. 「유아의 생식기 조직화」(1923)에서 프로이트는 최초로 심리발달, 즉 대략 3-5세 사이에 발생하는 완전한 조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묘사했다. 이는 성감대로서의 페니스의 우월성 그리고 대상관계에 있어 오이디푸스적 드라마에서 토대를 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프로이트는 자신의 발달 이론을 설명했다. 즉 구강기 다음에 항문기, 남근기(=오이디푸스기), 잠복기, 성인의 생식기 조직화. (성 심리 발달의 5단계) 남근기는 오이디푸스 시나리오의 정점이다. 이 기간 동안 반대의 성을 가진 부모들을 향한 성적 욕망과 경쟁 관계의 부모들로부터 보복을 받는 것에 대한 아이의 두려움이 야기한 거세 불안이 가장 강렬하다. 나중에 이 갈등은 억압이 작동함으로써 줄어들고, 아이는 잠복기로 들어간다. 사춘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 초기의 갈등이 재활성화 되는데, 성인의 생식기 조직화와 대상의 변화, 즉 어머니 대신 다른 여성 혹은 아버지 대신 다른 남성을 선택하는 덕분에 평형상태가 달성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사라진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에서 프로이트는 “영구치가 자라나면서 젖니가 빠지듯, 그것이 해체될 때가 왔기 때문에 파괴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사라지는 것은 유아적 형태의 오이디푸스 갈등이지 그것에서 결과하는 조직화의 형태가 아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두 가지. 우선 오이디푸스 갈등은 **동일시**를 추동하는데, 이것을 통해 개인

이 구성된다. 즉 남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 후, 자신의 어머니의 침상에서 아버지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처럼 되기를** 바란다. 즉 아버지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려고 하지만 거세위협으로 어머니를 포기하고, 나중에 아버지처럼 되어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아에 대한 언급이 여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문제를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실은 이 문제가 프로이트의 이론적 장애물이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논쟁의 원천이 된다.

우선 프로이트는 단순히 남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기술했고, 약간의 수정만을 가해서 여아에게도 동일한 것을 적용했다. 문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에 있다. 여아가 자신의 근친상간 욕망, 즉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얻겠다는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오직 그 콤플렉스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에만 가능하다.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구조적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 (1924)

신경증의 핵: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 용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망과 적대적 충동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에 맞서기 위해 수립된 방어들을 포괄하는 복잡한 관계망을 나타낸다. 프로이트는 이를 신경증의 핵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인간 정신기능에서 중심적 구조로 간주될 수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직접적 표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지만, 대부분 그것은 다른 대상들과 다른 종류의 갈등으로 전위를 통해서만 식별할 수 있는 무의식적 형성물들을 통해 스스로를 표명한다.

그 용어 자체는 이 관계망의 복잡성을 나타낸다. 대개 현대의 저자들은 그것에 심리발달을 구성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두 측면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갈등은 소망과 금지 사이에 있다. 즉 갈등 수립의 문화적 문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삼각관계 혹은 핵가족에 토대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일지라도, 이것이 다른 문화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프란츠 파농의 지적)

이 글의 의의는 남아와 여아의 성욕 발달이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 있다. 이 새로운 생각은 이후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심리적 결과」 (1925)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이른 유아기의 성적 시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다. 이후 해소가 발생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억압에 굴복하고 잠복기로 이어진다. 해체의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부모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고통스런 경험이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여아들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혹독한 벌을 받

으면서 이런 행복한 환영에서 깨어난다. 남아는 엄마를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지만 어느 날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로 쏠려 있음을 보게 된다. (개체 발생적 견해)

또 다른 견해도 있다. 영구치가 날 때가 되면 젖니가 빠지는 것처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해소될 시기가 되면 해소가 된다는 견해. 대다수 사람들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으레 겪어야 하는 경험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현상으로 예정된 다음 발달 단계가 오면 지나가는 현상이라는 것. (계통 발생적 견해)

이 두 견해는 양립된다. 개체발생 시각과 계통발생 시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아동의 성적 발달은 생식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 즉 남근기까지 이어진다. 이때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남성만의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페니스다. 여성의 것은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다. 이 남근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동일한 시기**인데, 생식기 조직화까지 발달되지 못한 채 함몰되고 잠복기로 이어진다.

남아들은 손으로 성기를 자주 만짐으로써 성기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때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된다. 남아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부위가 잘릴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 이런 협박은 주로 여성들이 하며, 이들은 아버지나 의사 선생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말에 권위를 싣는다. 제거되는 것은 성기가 아니라 죄를 범한 손이라고 하는 상징적 방법으로 거세 위협을 완화시키며, 거세를 받는 이유도 성기를 가지고 장난 쳤기 때문이 아니라 침대에 오줌을 싸기 때문인 경우도 흔하다. 야뇨증을 성기를 지나치게 가지고 논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거세 위협이 아동의 남근기 조직화를 막는다**. 아이가 이 위협을 조금도 믿지 않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정신분석은 모든 아이들이 겪는, 성기 거세를 준비하게 하는 두 가지 경험들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나는 엄마의 젖가슴에서 벗어나는 것, 또 하나는 배설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의 욕구 경험이다. 여자의 성기를 보는 경험으로 거세의 가능성을 깨닫고, 마지못해 자신이 본 것의 심각성을 완화시키려고 애를 쓴다. 여자의 성기를 봄으로써 페니스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이는 점차 자기와 같은 아이가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로써 자신의 성기도 없어질 수 있다고 상상하고 뒤늦게 거세 위협이 먹혀든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 모두 만족시켜준다. 능동적인 면은 자신을 아버지 위치에 놓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 경우 아버지를 방해꾼으로 여길 것이다. 수동적인 면은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어머니는 필요가 없다. 아이는 무엇이 에로틱한 성행위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페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흥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껏 여아에게 페니스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남아는 이제 거세가 가능함을 알고, 여아가 이미 거세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포기한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페니스의 상실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페니스에 대한 자기애적

관심과 부모에게 쏠리는 대상 리비도 집중 사이에서 대개 전자가 승리하고 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멀어진다. 부모에 대한 대상 리비도 집중은 동일시로 변한다. 아버지나 부모의 권위가 자아에 유입되고 여기서 초자아가 발생한다. 초자아는 아버지의 엄격함을 물려받아 근친상간을 금기시하고, 부모를 향한 리비도 집중으로부터 자아를 지켜준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속하는 리비도 경향의 일부는 동일시로 인해 약해지고 고상해지며, 일부는 억제되어 애정으로 바뀐다. 이 과정으로 거세 위협에서 벗어나므로 성기를 보존하며,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성기를 무력화시킨다. 이것이 잠복기로 이어지게 하며 아동의 성적 발달을 저지한다.

이 과정이 이상적으로 수행되면 콤플렉스를 파괴할 수 있다. 여기서 정상인과 환자의 경계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자아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임무를 잘 해내지 못하면 억압은 이드에 무의식 상태로 남아 있다가 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계속 야기되어 남아있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여자아이의 경우엔 이런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해부학적 구조는 운명이다. 즉 형태학적 구분이 심리학적 발달의 차이로 나타난다. 처음에 여아는 자신의 클리토리스를 남아의 페니스와 똑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점차 자신의 것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여긴다. 이것이 열등감의 요인이 된다. 여아는 페니스가 없는 것이 여성의 특징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원래 똑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세되었다고 추측할 뿐이다. 여기서 근본적 차이가 생긴다. 이미 일어난 일(여아)과 일어날 수도 있는 일(남아)

여아에게는 거세 공포가 배제되어 초자아 형성이 일어나는데 강력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 여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페니스를 가진 남아에 비해 훨씬 단순하다. 내 경험상 그것은 좀처럼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고, 아버지에게 여자의 감정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보상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없이 페니스를 포기하는 것은 여아가 감내할 수 없다. 여아는 상징적 등식에 의해 페니스에서 아기로 미끄러진다. (본문은 엄청난 오역)

여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절정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갈망이다. 이런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점차 사라진다. 페니스와 아이에 대한 소원이 무의식에 남아 여성의 성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게 돕는다.

이미 기술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거세 위협, 초자아 형성, 잠복기 시작의 발생순서와 그 원인 관계가 전형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심리적 결과 (1925)

이 글은 여성의 심리발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최종 평가하여 발표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1915년 이후 여성의 성 심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전 단계에 일어나는 여아들의 두 가지 중요한 변화에 관한 생각을 이 글에서 피력했다.

어린 아이의 성 생활에 의해 형성되는 최초의 정신 유형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남아의 경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일어나는 상황은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최초의 단계다. 나는 남아의 오이디푸스적 성향이 남근기에 속하며, 거세의 두려움, 즉 생식기에 대한 자기애적 관심 때문에 그 성향이 파괴됨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남아도 그의 양성적 성향에 따라 적극적active이거나 소극적passive인 이중적 성향을 띠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앞서 밝혔듯이 남아도 역시 아버지의 사랑 대상으로서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바람을 갖는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 이전에 남아는 아버지를 경쟁자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시기 자위행위가 양육자에 의해 제지되면 아이가 거세 콤플렉스를 보인다. 이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자가-성애로 시작하다가 후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을 맺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야뇨증과 훈육을 통해 그 버릇을 깨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단순히 자위의 결과로 간주하고, 그것의 강제적 중단이 남아에게는 생식 행위의 금지로 간주되어 거세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성교 장면을 엿들은 아동이 최초로 성 흥분을 일으키고, 그 여파가 성 발달의 출발점이라는 분석도 있다.